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Clothing Attitude

이은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Lee, Eun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cloth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00(male 297, female 303)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Choongnam and Jeollabukdo province.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with SPSS 11.0 for Windows Program to calculate percentil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lso, the significance of the data was verified by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factors to the response attitude toward appearance emerged four factors(sexual attractiveness, fashion pursuit, self-expression, aesthetic, and modesty). Gend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cloth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had an effects on clothing attitude. A group with high awareness score of gender equality showed high score in clothing attitude, fashion pursuit, self-expression, and aesthetic. A group with low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however, showed high in clothing attitude, sexual attractiveness and modesty.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Clothing Attitude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인 '양성평등의식'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1999).

이제까지 의복은 하나의 상징적 언어로써, 성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적 단서가 되어왔다. 그러나 산업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분리되어온 남녀간의 성역할 규범은 점차 약화되었고 의복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특징적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Bem(1974)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남자라서 남자 옷을 입어야 하고, 여자라서 여자 옷을 입는 시대는 지났으며, 따라서 남성적인 여성적인 또는 남성적-여성적인 요소가 복합된 의복을 착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이분화된 남성과 여성 다음을 극복하고 적응력과 융통성이 있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의복태도와 연계시켜 담론화시킬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복태도를 조사해봄으로써, 고등학생의 자신에 성에 근거한 차별적인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한 청소년기 의복태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Hee
Tel: 063) 850-6589
E-mail: ehlee@wonkwang.ac.kr

II. 이론적 배경

1.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 말은 남녀가 지니는 비본질적인 특성, 즉, 능력, 기질, 성격 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의미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성 차별 또는 성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부, 1999).

첫째, 양성평등을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으로서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양성평등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종식으로 보았다. 이것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이러한 성 위계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양성평등은 남성과 비교해볼 때, 여성이 지니고 있는 차이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남성은 여러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한시적이거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Colker, 1987; Young, 1990; Vogel, 1993; 김재춘, 왕석순, 1999).

양성평등의식은 1980-9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전 부문에 걸쳐 민주화 노력과 탈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등장이라는 맥락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과 함께 학교교육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등장하였다(왕석순, 2000).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양성평등의 개념보다는 성 및 성 관련 태도에 대해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지향성, 성역할 채택, 성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개념에 있어서의 혼란과 측정 도구,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황은, 2004).

의생활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의 개념보다는 성역할, 주로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내용으로,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왔다.

성역할(gender role)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자원에서 보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가치, 태도, 인성 특성의 문화기대에서 오는 행동규범으로서,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

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문화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성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질 것이 기대되므로 성역할은 각 문화마다 다르고 동일한 문화속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 나타날 수 있다(이명희, 1993; 우은복, 2002; 최임숙, 2004). Nelson(1988)은 성역할 개념을 성에 관련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성에 따르는 전통적 성역할 개념과 이를 부정하는 평등한 성역할 개념 차원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역할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습하는 과정을 성역할 사회화라고 한다. Allport(1937)는 남녀간의 차이는 대부분 생물학적 차이에서 연유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수준 향상과 문화진보에 따라 성차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은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태도, 특성, 흥미 등을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 결과이므로 개인에 따라 동일시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한다(Anderson, M. L., 1983). 하지만 어느 사회이든 지 각각의 성별이 지니는 일련의 특성에 대해 여성은 여자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분화하여 양성간의 역할에 융통성이 없이 역할분담을 한다. 활동영역에서도 여성은 가정, 남성은 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별을 지운다.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일차적 요인이 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는 사회는 결코 양성평등사회가 될 수 없으므로 양성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남녀성차를 떠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특성과 관련하여 성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성별분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에 와서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여성은 순종적, 의존적, 소극적이어야 하며, 남자는 적극적, 활동적, 진취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남녀의 성역할 구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면 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적응력 있게 행동하는 즉, 양성

성(Androgyny)의 유형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심리적 양성성을 지닌 인간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심리적 양성성 인간이란 성전형화되지 않고 성교차전형화(cross-sex typing)되어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균형을 이루며 동시에 지닌 인간을 의미한다(우은복, 2002). 그리스의 Andros(남)와 gyne(여)에서 파생된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은 Bem(1974)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다. 양성성이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성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Bem은 성고정화된 행동에 대한 동조가 약화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양성성 개념을 성역할 연구에 도입하였다(Bem, 1974; Kaplan & Sedny, 1980). 양성적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Cook(1985)은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만을 하는 성전형화된 사람에 비해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써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낸다고 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된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시기가 남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올라가는 시기이고,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남성은 남성성 정체감을, 여성은 여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증가되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에게 있어서 성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역할들로 규정된다.

따라서 성역할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목표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준을 초월하는 양성성 정체감의 성립이다(김영희, 1990; Massad, 1981; Williams et al., 1975; Deaux & Lewis, 1984).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임숙(2004)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미분화, 고등학생은 남성성, 대학생은 양성성 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 미분화, 고등학교와 대학생은 여성성으로 발달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의복의 태도, 습관, 착용 행동을 뜻하며, 의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의복행동의 하위개념이다. 즉, 개인의 일반적인 의복착용 행동을 의복태도라 칭하고, 의복행동은 의복태도의 상위

차원으로서 폭넓은 의복변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은실, 이명희, 1998).

의복이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은 성(gender)이므로 성역할의 변화는 의복의 변화를 동반한다(차진희, 김재숙, 1995).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은 의복에 의해 강화되었고, 의복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구별해 주는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가사노동 감소, 양성평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역할 차이가 감소되고 이러한 현상 또한 의복에 반영되고 있다. 현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는 양성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그들의 사회행동, 교육활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아울러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이 생애 주기 전체에서 자존감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변화에 따른 의복행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성역할 태도 및 성역할 정체감이 의복행동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음이 제시되었다(이명희, 1993; 차진희, 김재숙, 1995; 한근미, 정삼호, 1999).

그러나 주로 성역할 관련 특성과 의복행동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과 관련된 특성과 의복행동, 의복태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복과 성역할 관련 태도와 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인 여성은 의복에서도 유니섹스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다(원미숙, 강혜원, 1983; 최경희, 강혜원, 1985; 문근식, 1988; 김정립, 1990).

제주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최희순(1988)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은 외모에 대한 의복관심도(외모, 동조성, 유행성, 정숙성, 상표지향성)가 높다고 하였다.

Bem과 Lenney(1976)은 양성적인 사람이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더욱 건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윤경(1990)의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가 현대적인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에 비해 유행에 관심이 높고, 전통적인 여성은 안락감, 이성에게 주는 매력성, 사회경제적 상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재(1991)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경우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유니섹스를 즐기고 편이성을 중시하는 반면, 유행성과 성적 매력성에는 낮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정(1992)은 양성성 및 남성성 유형의 남자 대학생은 동조성을 중시하지 않고 개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성 및 미분화 유형의 남자 대학생은 동조성을 중요시 않고 개성을 중요시 하며, 여성성 남자 대학생은 동조성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김재희(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양성성 남자가 패션에 대한 관심, 신분상징성 및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여성성과 미분화 남자는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신분상징성 및 개성에 대한 관심 또한 낮았다고 하였다.

차진희와 김재숙(1995)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념을 지니며 의복에 대하여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경진(1996)의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은 양성성이 높고, 여학생은 여성성이 높았다. 남자이면서 여성성을 가진 학생은 의복의 관리성, 동조성, 만족성, 심리적 의존성, 흥미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이면서 남성성을 가진 학생은 의복의 동조성, 만족성, 심리적 의존성, 안락성, 흥미성이 높았다. 양성성을 지닌 학생들은 의복의 동조성을, 미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의복의 흥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선영과 이선재(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남성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미분화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 성향이 강한 고교생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로 유행, 흥미로운 관심 등 의복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실용적인 위험지각을 하는 합리적인 의복행동을 하고 있었다. 여성성의 성향이 강한 고교생들은 유행을 따르면서 실용적 위험지각을 하는 여성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남성성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유행은 따르면서도 흥미로운 관심이나 실용적 위험지각과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분화의 경우는 유행, 흥미로운 관심, 상징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에(2004)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인 여학생은 의복의 심미성을, 양성성을 지닌 남학생은 의복의 정숙성에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볼 때, 성역할면에서 본 성격 특성은 의복행동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며 여성의 의복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역할 특성은 각자의 의복태도에 표현이 되며,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의복태도를 성역할 정체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의복태도를 성역할 태도면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최근 사회적 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의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의복태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의생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4개교 2학년제 재학생인 남녀 고등학생을 임의 추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4년 1월 중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총 648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60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 변인은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남학생이 297명(49.5%), 여학생 303명(50.5%)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각각 49.5%, 63.3%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202명(33.7%), 어머니는 전업주부(48.8%)보다 취업주부(51.2%)가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양성평등의식

먼저 양성평등의식은 한국여성개발원과 정해운(2001)이 제시한 '한국남녀평등의식검사'의 총 80문항 중 본 조사대상자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총 35문항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의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alpha=.90$ 이었다.

2) 의복태도

의복태도 문항은 성적매력성, 개성표현, 유행추구, 심미성, 정숙성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박혜선, 1995;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 2000)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성적매력성은 이성의 관심을 끌고 섹시하게 보이려는 의복사용을 의미한다(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개성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이며, 유행추구는 의복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의복선택 시 유행을 수용하는 의복태도로 정의하였다. 정숙성은 성적 흥미와 관련된 신체노출이나 신체에 밀착된 의복을 피하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의복을 착용하려는 의복태도로 정의하였다. 심미성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의복태도로 정의하였다(박혜선, 1995).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1.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의복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위해 Cronbach's의 α 를 산출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중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과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의복태도 24문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이 5개이었으므로 5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과 문항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문항 4개를 제외한 18문항에 대해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유행추구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67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5.93이고 설명력은 32.96이며, 신뢰도는 $\alpha=.87$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성적매력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8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67이고 설명력은 9.30%이며, 신뢰도는 $\alpha=.84$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개성표현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7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36이고 설명력은 7.67%이며, 신뢰도는 $\alpha=.88$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정숙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63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22이고 설명력은 6.80%이며, 신뢰도는 $\alpha=.74$ 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심미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7이상이고 모두 2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06이고 설명력은 5.91%이며, 신뢰도는 $\alpha=.80$ 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의 차이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비교적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선행연구(Stoddart & Turiel, 1985; 유가효, 1994; 정해숙, 유희정, 이홍립, 이순열, 1998)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이것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유지 또는 변화가 인지적 발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남녀 중학생 모두 양성성이 높게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 심경진(1996)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에서는 성적매력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추구($p<.001$)와 개성표현($p<.01$), 심미성($p<.00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정숙성($p<.00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

〈표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 1> 유행추구		
유행에 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읽고 자신의 옷을 최신 유행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77
새로 유행하는 옷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72
새로운 유행에 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편이다.		.69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의복유행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69
새로운 패션을 알기 위해 친구나 연예인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는다.		.67
변량(%)=32.96 누적변량(%)=32.96 고유치=5.93 α 신뢰도=.87		
<요인 2> 성적매력성		
데이트를 한다면 나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돋보이는 옷차림을 한다.		.89
나는 이성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는 나의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86
나는 이성친구의 관심을 끄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78
나는 새 옷을 살 때 그 옷이 이성친구의 호감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산다.		.66
나는 이성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옷차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8
변량(%)=9.30 누적변량(%)=42.26 고유치=1.67 α 신뢰도=.84		
<요인 3> 개성표현		
나는 주로 독특한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입는다.		.72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의 개성을 나타내는 옷이 좋다.		.67
나는 옷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		.57
변량(%)=7.67 누적변량(%)=49.83 고유치=1.36 α 신뢰도=.88		
<요인 4> 정숙성		
나는 정숙한 느낌이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73
외출할 때 지나치게 신체를 드러내거나 파진 것은 절대로 입지 않는다.		.66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옷은 입지 않는다.		.63
변량(%)=6.80 누적변량(%)=56.62 고유치=1.22 α 신뢰도=.74		
<요인 5> 심미성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옷에 맞는 장신구나 부속품을 하려고 노력한다.		.65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색, 디자인, 옷감이 잘 조화된 것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57
변량(%)=5.91 누적변량(%)=62.53 고유치=1.06 α 신뢰도=.80		

과,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261명, 중간 집단은 221명, 낮은 집단은 118명으로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의 차이 (n=600)

의복태도	성별	남 (n=297)	여 (n=303)	t
	양성평등의식		3.46	4.13
의복태도	유행추구	2.61	2.89	-4.19***
	성적매력성	3.03	3.07	-.72
	개성표현	2.94	3.13	-3.05**
	정숙성	3.40	3.10	5.34***
	심미성	3.09	3.66	-9.09***

p<.01, *p<.001

다음으로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유행을 추구하였고(p<.001), 개성표현도 높았으며(p<.05), 심미성도 높게 나타났다(p<.001). 이와는 반대로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성적매력성과(p<.01),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 성향이 강한 고교생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로 유행, 흥미로운 관심 등 의복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실용적인 위험지각을 하는 합리적인 의복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 백선영과 이선재(2000)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및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

〈표 3〉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n=600)

양성평등의식 의복태도	높은집단 (n=261)	중간집단 (n=221)	낮은집단 (n=118)	F
유행추구	3.09a	2.75b	2.56c	16.81***
성적매력성	3.08ab	2.94b	3.19a	4.52**
개성표현	3.11a	3.09a	2.93b	3.48*
정숙성	3.13b	3.29a	3.37a	6.73***
심미성	3.59a	3.23b	3.17b	17.42***

*p<.05, **p<.01,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p<.05)

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행추구는 주효과에서 성별과 양성평등의식 각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p<.001),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성적매력성은 양성평등의식(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개성표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p<.01), 정숙성은 p<.05 수준에서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심미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p<.01),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있었다. 결과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심미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 소재한 4개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생을 임의 추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4년 1월 중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총 648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60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1.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의복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을 위해 Cronbach's의 α를 산출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위해 군집분

〈표 4〉 성별 및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n=600)

의복태도 양성평등의식		성별	남 (n=297)	여 (n=303)	전체	변량원	F
유행 추구	높은집단		3.07	3.24	3.09	성별(A) 양성평등의식(B) A X B	18.58*** 9.82*** 2.63
	중간집단		2.19	2.89	2.75		
	낮은집단		2.40	2.82	2.56		
	전체		2.61	2.89	2.75		
성적 매력성	높은집단		3.08	3.08	3.08	성별(A) 양성평등의식(B) A X B	1.08 3.09* .35
	중간집단		2.89	3.02	2.94		
	낮은집단		3.18	3.36	3.19		
	전체		3.03	3.07	3.05		
개성표현	높은집단		3.09	3.33	3.11	성별(A) 양성평등의식(B) A X B	6.07** 1.83 .08
	중간집단		2.92	3.13	3.09		
	낮은집단		2.82	3.10	2.93		
	전체		2.94	3.13	3.03		
정숙성	높은집단		3.47	3.05	3.13	성별(A) 양성평등의식(B) A X B	3.40 .74 3.26*
	중간집단		3.27	3.50	3.29		
	낮은집단		3.48	3.17	3.37		
	전체		3.40	3.10	3.25		
심미성	높은집단		2.84	3.79	3.59	성별(A) 양성평등의식(B) A X B	9.56** 2.59 14.55***
	중간집단		3.09	3.46	3.23		
	낮은집단		3.20	2.80	3.17		
	전체		3.09	3.66	3.38		

*p<.05, **p<.01, ***p<.001

석(cluster analysis)중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과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에서는 성적매력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추구와 개성표현, 심미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정숙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고등학생들은 의복의 유행을 추구하였고, 개성표현도 높았으며, 심미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의복의 성적매력성과,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 및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행추구는 주 효과에서 성별과 양성평등의식 각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적매력성은 양성평등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개성표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정숙성은 $p < .05$ 수준에서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고등학생은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을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성차별적 사회적 인식과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구조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나 양성평등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성평등의식이 의복태도 변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특정학교의 2학년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양성평등의식과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고등학생, 양성평등의식, 의복태도

참 고 문 헌

-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 (2000).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연령·지역 차이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의류학회지*, 24(4), 475-486.
- 교육부 (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영희 (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 (1992). 남자 대학생의 유행 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 왕석순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재희 (1994). 유행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 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립 (1990). 성정체감에 따른 여자 대학생의 의복행동 차이.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군식 (1988). 남·녀 고등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애 (2004).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 존중감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 (1995). 의복 태도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968-983.
- 백선영, 이선재 (2000).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55-66.
- 신경진 (1996).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석순 (2000).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3), 77-91.
- 우은복 (2002).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8(1), 83-106.
- 원미숙, 강혜원 (1983).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7(2), 37-44.
-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계명행동과학*, 7(1), 131-140.
-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 이선재 (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173-187.
- 이은실, 이명희 (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생활문화연구*, 12(1),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25.
- 이은희 (2002).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237-251.
- 정해숙, 유희정, 이홍림, 이순열 (1998). 학교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남녀평등 의식 고취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홍선옥 (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진희, 김재숙 (1995). 성역할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 연구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38-746.
- 최경희, 강혜원 (1985).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9(1), 1-8.
- 최윤경 (1995). 성인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임숙 (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17(2), 367-379.
- 최희순 (1988).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심도와의 관계 -제주도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근미, 정삼호 (1999). 청소년의 성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의복태도 및 유행스타일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국제학술심포지움 및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황은 (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 Allport, G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and Co., 433.
- Anderson, ML (1983). *Thinking about women : sociological and perspectives*. New York : Macmillian. 49.
- Bem, S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Bem, SL, Lenney, E (1976). Sex-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 Colker, R (1987). The Anti-Subordination Principle: Application. D. K. Weisberg(ed.), *Feminist Legal The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Cook, E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 Y.: Pergamon Press.
- Deaux, K, Lewis, L (1984). The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Kaplan, AG, Sedny, M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Massad, DH (1981). Sex role ident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2, 1290-1298.
- Nelson, MC (1988). Validity, and Cross-cultural Comparison for the Simplified Attitude Toward Women Scale. *Sex Roles*, 18(5/6), 289-296.
- Stoddart, T, Turiel, E (1985). Children's concepts of cross-gend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6, 1241-1252.
- Williams, JE, Bennett, SM, Best, DL (1975). Aware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5-642.
- Vogel, L (1993). *Mothers on the job*.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Young, IM (1990). *Justices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08. 19 접수; 2005. 10. 31 채택)